

'60승 선착' KIA, 꺾 막힌 타선 홈런으로 뚫었다



최원준·김선빈·변우혁 '홈런'...3연패 탈출

KIA가 9회 2사에서 타진 김선빈과 변우혁의 '백투백 홈런'으로 3연패에서 탈출했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8차전에서 4-3 역전승을 거뒀다. 3연패에서 벗어난 1위 KIA는 60승에 선착했다.

아쉬운 수비로 KIA가 선취점을 내줬다. 1회말 시작과 함께 3루수 김도영의 포구 실책이 나오면서 키움 투타자 이주형이 출루했다. KIA 선발 양현종이 도슨을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송성문에게 우중간 2루타를 허용하면서 이주형이 홈에 들어왔다.

이어진 1사 2루에서 양현종이 김해성을 좌익수 플라이로 아웃시켰지만 최주환에게 좌전 적시타를 내주면서 0-2가 됐다.

4회에도 실책과 함께 실점이 올라갔다. 양현종이 1사에서 최주환에게 펜스 패리는 우측 2루타를 허용했다. 유격수 땅볼이 나오면서 2사 3루, 김재현의 깊숙한 타구를 처리하던 유격수 박찬

호가 공을 놓치면서 최주환이 홈에 들어왔고 점수는 0-3이 됐다.

수비 실수로 초반 리드를 내준 KIA는 키움 선발 헤이스우스와의 승부에서 잔루만 남겼다.

1회 2사에서 김도영이 고척 돔 천장을 때리는 2루타를 만들었지만 후속타가 따르지 않았고 2회에는 소크라테스가 좌익수와 3루수, 유격수 사인에 떨어지는 안타로 출루했지만 2루로 향하다가 아웃됐다.

3회는 삼자범퇴로 끝났고, 4회에는 김도영이 중전안타로 나간 뒤 폭투와 땅볼로 3루까지 갔지만 홈에는 이르지 못했다.

5회에는 1사에서 변우혁의 좌측 2루타가 나왔고, 박찬호의 볼넷까지 이어졌지만 역시 득점에는 실패했다.

삼자범퇴로 마무리된 6회, 7회에는 선두타자 소크라테스가 2루수 앞 번트 안타로 출루에 성공했지만 김선빈의 병살타가 나왔다.

키움 헤이스우스는 7이닝(96구) 5피안타 1볼넷 5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8회 2사에서 KIA가 '한 방'으로 침묵을 깼다. 2사에서 이창진이 볼넷으로 출루했고, 최원준이

양지울의 직구를 우측 담장 밖으로 보내면서 2-3을 만들었다. 이어 김도영이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추가 득점에는 실패한 KIA.

8회말 박도규에 이어 마운드를 물려받은 이준영이 선두타자 송성문에게 좌측 2루타는 맞았지만 김해성을 삼진, 최주환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고 투아웃을 만들었다.

그리고 임기영이나와 고영우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이닝을 끝냈다.

1점 차에서 시작된 KIA의 9회 마지막 공격, 최형우가 2루 땅볼로 아웃됐고 소크라테스의 방망이가 헛돌면서 4연패가 확정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김선빈이 키움 투수 김성민의 초구를 공략했다. 김선빈의 방망이를 떠난 공은 크고 높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고척돔 외야 좌측 관중석에 떨어졌다.

승부를 3-3 원점으로 돌린 KIA는 변우혁의 연속 타자 홈런으로 리드를 가져왔다. 변우혁도 초구에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좌중간 담장을 넘겼다.

1점의 리드를 안고 임기영이 9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대타 원성준을 7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임기영은 김태진과 이용규를 각각 2루 땅볼로 처리하면서 팀의 시즌 60번째 승리를 완성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원준

'야구 천재' 김도영, 최연소·최소 경기 100득점 '신기록'



3경기 연속 홈런...이승엽·테임즈 넘어서

'야구 천재' 김도영이 3경기 연속 홈런으로 최연소 100득점 선점·최소경기 100득점 기록을 동시에 달성했다.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지난 27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7차전에서 0-1로 뒤진 4회초 1사 1루에서 후라도의 초구 투심 패스트볼을 중앙 담장 밖으로 보내면서 역전 투런포를 장식했다.

이 타석 전까지 99득점을 기록하고 있던 김도영은 홈런으로 타점에 이어 득점까지 올리면서 '100득점'을 채웠다.

최연소 100득점 선점, 최소경기 100득점 기록도 동시에 달성했다.

앞선 최연소 100득점 선점 기록은 두산 이승엽 감독의 22세 1개월 15일, 김도영은 20세 9개월 25일에 가장 먼저 100득점을 기록하면서 1년 4개월 가까이 기록을 단축했다.

또 김도영은 97경기 만에 100득점 고지에 오르면서 이승엽 감독과 NC 테임즈의 99경기를 넘어 최소 경기 100득점 기록도 만들었다.

김도영은 팀 동료 서건창의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도 넘보고 있다.

서건창은 넥센(현 키움) 시절이던 2014년 KBO 사상 첫 200안타를 넘기는 특급 활약으로 135득점을 기록했다.

김도영은 앞서 지난 4월에는 KBO 사상 첫 '월간 10홈런-10도루' 기록을 만들었고, 지난 6월 23일에는 한화의 '괴물' 류현진을 상대로 시즌 20번째 홈런을 기록하면서 전반기 '20-20'에 성공했다.

앞선 23일 NC와의 홈경기에서는 4타석 만에 1루타, 2루타, 3루타에 이어 홈런을 기록하면서 KBO리그 두 번째이자 사상 첫 4타석 '내추럴 사 이클립 히트'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 대통령기 우승

20년 만에 쾌거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팀이 20년 만에 대통령기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소프트테니스 남자 국가대표팀 사령탑인 김백수 감독이 이끄는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 선수단은 28일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제62회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남자일반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순천시청은 준결승에서 서울시청을 2-0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한 뒤 음성군청을 상대로 1경기 와 2경기를 모두 따내며 매치스코어 2-0으로 승리하며 1위에 올랐다.

1경기 복식에서는 류태우-임민호 조가 음성군청

의 박환-이요한 조를 5-2로 꺾었고, 2경기 단식에서는 이하늘이 음성군청 황보은을 4-1로 제압했다.

이번 우승은 2004년 제42회 대회 이후 20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순천시청은 또 이번 우승으로 지난 3월 회장기에 이어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류태우는 혼합복식, 남자복식, 단체전에서 모두 우승하며 3관왕에 올랐고, 이하늘은 남자복식-단체전 2관왕과 혼합복식 준우승을 기록했다.

김백수 감독은 "이번 우승은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값진 결실이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더 많은 대회와 오는 10월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가브리엘 결승골' 광주, 수원FC 격파하고 2연승

K리그2 25라운드 홈경기 1-0

광주FC가 1점의 승리를 지키면서 연승을 기록했다.

광주FC는 지난 2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K리그2 2024 25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5분 타진 가브리엘의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24라운드 대구FC와의 원정경기에서 1-0 승리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베카가 시도한 터닝슈팅이 아쉽게 골대를 벗어났지만 2분 뒤 광주의 골이 기록됐다.

왼쪽에서 베카가 크로스를 올렸고, 골대 오른쪽에 있던 가브리엘이 달려들어 헤더로 수원FC의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6월 30일 제주전에 이어 5경기 만에 기록된 가브리엘의 시즌 6호골. 베카는 시즌 첫 도움을 올렸다.

전반 15분에는 광주 수호신 김경민에게 시선이 쏠렸다. 수원FC 짝스의 오른쪽 슈팅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광주 골대로 날아왔지만 김경민이 몸을 날려 공을 쳐 냈다.

1-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한 광주, 후반 10분 베카가 골 사냥에 나섰다.

수원FC 진영에서 가브리엘에 이어 정호연에게 공이 연결됐다. 정호연이 슈팅을 시도하는 대신 공을 넘겨줬고 베카가 오른쪽 눈스톱 슈팅으로 연결했다. 상대 골키퍼 안준수가 뛰어올라 공을 막으면서 득점에는 이르지 못했다.

추가골 사냥에 실패한 광주가 후반 40분 위기의

순간을 맞았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김태환이 넘겨준 공을 정승원이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광주 골대를 갈랐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동점골, 결승골을 넣으며 2패를 안겨줬던 정승원이 다시 한번 '천적'으로 광주를 울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슈팅에 앞서 김태환의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광주가 숨을 돌렸다.

광주는 후반 추가 시간 6분까지 막판 공세를 막고 1-0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코리아컵 포함 3연승에 성공했다.

빅토를 시작으로 베카 그리고 가브리엘이 3경기의 결승골 주인공이 되면서 광주는 워밍업 끝낸 아사니까지 외국인 공격진을 앞세워 순위 싸움 재점화에 성공했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대, MBC배 전국대학농구 6년만에 정상 탈환

단국대에 68-58 승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단국대를 꺾고 6년 만에 MBC배 전국대학농구 정상에 탈환했다.

광주대는 지난 26일 경북 상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대학부 결승에서 나란히 20득점에 성공한 '쌍포' 양유정과 임교담을 앞세워 68-58 승리를 거뒀다.

가드 유이비가 12점 7리바운드 6어시스트 6스틸, 정채련도 7득점 12리바운드 11어시스트의 활약을 선보이면서 우승에 힘을 보탤었다.

전반을 39-39로 맞선 광주대는 3쿼터 시작과 함께 양유정의 돌파와 임교담의 속공 등을 앞세워 56-43까지 달아났다.

하지만 광주대는 4쿼터에서 단국대 류기형에게

연달아 3점포를 내주면서 58-56, 2점 차 추격을 허용했다. 위기 상황에서 압박 수비로 상대를 묶은 광주대는 리바운드에서 33-49로 뒤졌지만 야투 성공률(42%-31%), 속공 점수(27-16)에서 단국대를 압도하면서 10점 차 승리를 거뒀다.

유이비가 대회 MVP와 어시스트상 주인공이 됐고, 양유정은 득점상 트로피를 쟁겼다.

우승을 지휘하며 최우수감독에 선정된 국선경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신장이 작고 외곽슛이 약하지만 몸 관리도 잘했고, 많은 연습량으로 우승의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여세를 몰아 9월부터 재개되는 KUSF 대학농구리그에서도 대회 2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UBUNTU : 장원석·박일광

일시 : 2024-07-12(수) ~ 2024-08-1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장원석·박일광

UBUNTU

2024.7.12(수) - 8.11(일)